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World News Review, 부모 (육아를 부탁해), 미술심함대, and others with their respective time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능특강 light, and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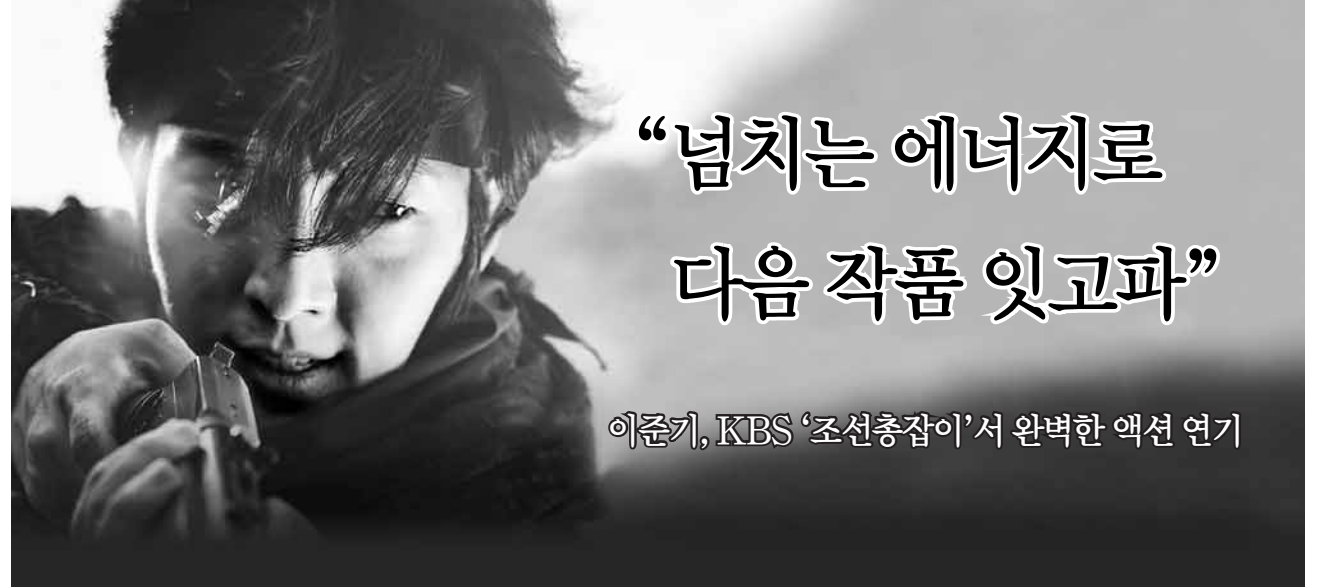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전철한 수학의 힘, and other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7일(음 8월 24일 辛卯)

Table of daily fortune tellings by zodiac sign (子, 丑, 寅, etc.) with descriptions and lucky nu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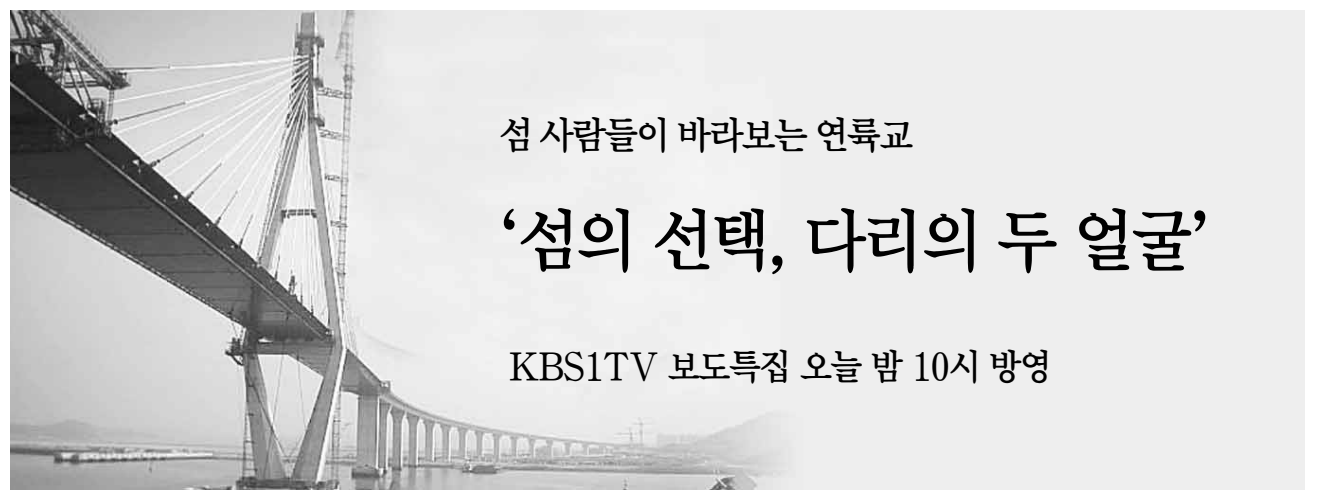


“넘치는 에너지로 다음 작품 잇고파”

이준기, KBS ‘조선총잡이’서 완벽한 액션 연기

최근 종영한 KBS 2TV 퓨전사극 ‘조선총잡이’는 배우 이준기(32)의 드라마였다. 이준기는 젊었을 때부터 금세 안경 뒤로 정체를 숨긴 일본 상인인 복수에 불타는 복면의 총잡이를 거쳐 민중 영웅으로까지 변신을 거듭하면서 ‘이준기 사극 불패 신화’를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드라마 종영 후 이준기를 만났다. 검은 페도라 아래 같은 색 티셔츠를 받쳐 입고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등장한 이준기의 모습은 꽤 낯설었다. 이준기는 “조선총잡이’가 긴 시간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아서 기쁘고 지금은 정말 흥분한 마음”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에너지가 넘치는 배우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연기 잘하는 배우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이준기이지만 그는 이번 작품에서도 열정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특히 총과 같이 맞부딪히는 이번 사극에서 액션 연기를 훌륭히 소화했다는 평가다. “제가 액션을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면서 활활 웃던 이준기는 “헤비씨가 그날 저한테 반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선총잡이’는 이러한 이준기의 활약에 힘입어 근소한 차이로 하지만 방송 기간 대부분 수목극 시청률 1위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한국형 영웅물의 탄생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에 못 미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준기의 말에서 진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배우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장에 충실하는 것이니 대부분을 최대한 숙지하고 연구하면서 임했는데 아쉬움이 커요. 드라마 촬영 시간이 원래 빠듯한 탓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담지 못했어요. 액션 연기도 무술 감독을 계속 즐겼지만 시간이 모라더라고요.” “오히려 이번 작품에서 제 키스 능력이 진화했다”는 이준기는 극중 상대인 정수인(남삼미)과의 애절한 사랑 연기에 도전할 욕심을 냈다.

“키스신만 해도 가족들이 보는 드라마인 만큼 그 수위를 지키면서도 가장 세사하게 보일 각도가 어디일까 계속 고민했어요. 눈빛이나 호흡 등 연기톤도 그렇구요. 이걸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제가 현장에서 흥분한 탓에 남삼미 씨가 귀찮아했어요. (웃음)” 이번 드라마는 MBC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 이후 이준기-남삼미 커플이 7년 만에 재회했다는 점만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이준기는 “상미씨가 예전에는 마냥 귀엽고 어린 여동생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애정신을 찍을 때 제가 기댄 부분이 없지 않았다”면서 “어배우로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차게 임하기에 제가 편하게 상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준기는 이제 서른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인 만큼 연애와 결혼에 몸이 담았음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연애의 욕망이요? 그게 없으면 남자인가요. (하하하) 저도 슬슬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는 이와 함께 “정말 로맨스 연기를 하고 싶다. 그게 얼마나 복이나”면서 애정물에도 욕심을 냈다. 그러면서 “출연 제의가 들어온 로맨스물들이 별로 끌리지 않는다. 저 자신을 매료시킬 수 있는 작품이라면 자신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기의 작품들을 보면 SBS ‘일지매’ 등 영웅물이 많다. 이준기는 “작품을 두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할 때 이제 영웅물을 그만해야 하나 하고 말하기보다는 새 작품에서 는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라고 말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면서 여전히 애정을 표했다. 이준기는 곧 중국 2개 도시와 일본 3개 도시 등 5곳을 돌며 해외 팬들과도 만나는 등 계속 바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백기가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대한 쉬지 않고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의 마지막 말에서 다시 한번 연기에 대한 열정을 느꼈다.



섬 사람들이 바라보는 연륙교 ‘섬의 선택, 다리의 두 얼굴’ KBS1TV 보도특집 오늘 밤 10시 방영

우리나라 전체 3339개의 섬 중 2219개인 66%가 전남에 몰려 있다. 그리고 104개의 섬에 다리가 놓이거나 놓일 예정이다. 최초의 연륙교인 부산 영도대교가 놓인지 80년.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연륙, 연도교 건설로 섬사람들은 과연 더 행복해졌을까. 섬에 놓인 다리로 인한 명암을 취재한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KBS광주총국은 17일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보도 특집 프로그램 ‘섬의 선택, 다리의 두 얼굴’(기획 정병준, 취재 류성호, 촬영 박석수)을 방송한다.

추석 파일럿 MBC ‘헬로! 이방인’ 내달 정규 편성

외국인의 솔직한 리액션에 시청자 호응 “더욱 유쾌한 한국 생활 보여드리겠습니다”

MBC는 지난 추석 파일럿으로 선보인 ‘헬로! 이방인’(사진)을 시청자의 호응으로 내달 중순 정규편성한다고 16일 밝혔다. ‘헬로! 이방인’은 게스트하우스 주인인 배우 김광규가 글로벌 청춘남녀 11인을 초대해 1박2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해보고 싶었던 일을 체험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추석날인 지난 8일 방송돼 시청률 7.4%를 기록하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외국인 남성들이 한국 대중음악을 경험하는 모습이 폭소를 자아냈고 평소 한국인으로 오해받는다던 미모의 중국인 출연자 레이는 온라인에서 계속 화제를 모았다. MBC는 “파일럿 방송 당시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외국인들



의 리얼한 리액션과 솔직한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신선함과 차별화된 재미를 줬다”며 “앞으로도 개성 강한 외국인들이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상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